

박상건 호남대학교 제4대 이사장 취임식

“인재 양성 최선…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동반자 될 것”

현 씨아이하우징·에스시아이 회장·한국대학법인 호남대학교 이사
“합리적·실용적 학교 운영…구성원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박상건 제4대 이사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교내 문화 체육관에서 전체 교수원과 학생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대학의 미래가 지역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지역대학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의 위기에 직면 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 움 그 자체”라고 진단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하게 도전해서 두려움과 폐쇄주의를 블식시키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교직원들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학 운영,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도움을 기울여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호남대 가족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강조했다.

박상건 총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역사와 현실을 깨뚫고 계시는 이사장

님의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통찰은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의 주역으로 이끄는 든든한 이정표 가 될 것”이라면서 “이사장님의 취임을 구심점 삼아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이 돼서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려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이사장은 고 박기인 설립자와 고 이화성 박사의 차남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쥬씨아이하우징 회장과 쥬에스시아이 회장, 한국대학법인 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 이사장을, 지난해 5월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11월 19일부터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박상건 제4대 이사장이 10일 취임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설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나주 금성원 찾아 위문품 전달·종사자 격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0일 설을 앞두고 나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금성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온정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원은 제철 과일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을 살폈다. 또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52년에 설립된 금성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상처 받은 우리 아이들이 밟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 및 교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시설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명절 기간에도 아이들이 정서적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더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0일 설을 앞두고 나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금성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최근 운암마리보3차아파트 경로당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주순일 북구의원, 경로당 환경개선 감사패 수상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최근 운암마리보3차아파트 경로당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으며, 감사의 의미로 주 의원에게 상화를 전하게 됐다.

주 순일 의원은 “어르신들이 복지 향상과 과제적인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은 물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운암마리보3차아파트 경로당은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으며, 감사의 의미로 주 의원에게 상화를 전하게 됐다.

주 순일 의원은 “어르신들이 복지 향상과 과제적인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은 물론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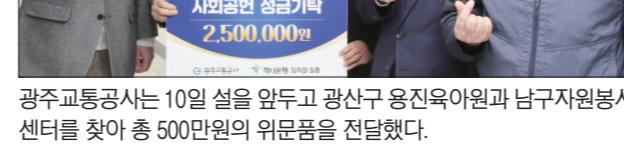
광주교통공사, 설 맞이 나눔 보따리 배달 ‘훈훈’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 공동으로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기 나눔에 나섰다.

광주교통공사 문석환 사장과 김형일 노동조합위원장, 하나은행 노원지점장, 박상건 경로당 대표가 함께 25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행장은 10일 광주시의회 심찰의 의원, 임미란 의원과 함께 광산구 운진아이원과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총 5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맞이를 기원했다.

이번 위문품 행사는 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을 비롯해 하나은행, 지역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민·관·공 협력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공사는 설 명절



광주교통공사는 10일 설을 앞두고 광산구 운진아이원과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총 5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매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문석환 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 모두의 성정을 모아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광주시민 모두 소외되는 분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지산2동, 취약계층 고립감 해소 앞장

광주 동구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돌봄 이웃,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산2동 지역



광주 동구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립감 해소에 힘썼다.

신영순 지산2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드시며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산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산2동 자사협 위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의 명절

을 전달하며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의